

2022 년 8 월 14 일 “예수님의 비유(9) 결박 당한 강한 자” (마 12:25-29)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예수님이 사탄에게 행하신 일과 후속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배경

v.29 에서 집 안에 있는 힘센 자는 사탄을, 그를 결박하는 사람은 예수님, 그리고 세간은 사탄의 권세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세상과 인간을 불법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한 후에 인간을 구해 내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12:22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두목 바알새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23 절)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28 절후). 주님의 축귀와 치유는 죄의 권세자 사탄의 결박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참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요일 3:8))

[2]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의미

두 질문이 생깁니다. (1) 어떻게 사탄이 불법으로 세상과 사람을 장악했는가? (2) 주님이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다면 아직도 득세하는 죄와 악은 어디서 오며 어떻게 대면해야 할까?

(1) 창조된 인간의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피조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리통치 역할입니다. 한 가지 조건은 왕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뜻에 불복했고 그 결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 일은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꼬임수에 의해 시작된 일입니다. 결국 사탄은 거짓말로 사람을 장악했고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 또한 그의 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대표적 거짓말은,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입니다. 사람을 이기적/자기중심적 존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확장을 추구하는 본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중심성은 자기에게만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거짓말은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매여서 종 노릇하게’(히 2:15)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니 자기 삶 또한 두려워 인생의 가치를 폄하하고, 이 세상 또한 애써보아야 가치 없는 세상이라고 믿게 합니다. 그래서 조바심과 시기와 질투를 일으켜 자기 인생과 타인을 망가뜨립니다(예: 창 4 장 가인).

결국 사람이 다스리도록 맡겨진 피조계가 사탄의 그늘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 예수님이 이 사탄을 결박하셨는데 계속 위협하는 죄와 악은 어떻게 대면해야 하는가? 죄의 뿌리는 잘라냈지만, 아직도 활동하는 죄의 잔여세력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나았지만 후유증이 남아서 치료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속에 남아 있는 죄와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죄의 사령관은 이미 결박되었으므로 예수님이 이긴 싸움이지만 잔여세력과의 싸움은 우리 또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 죄와 싸웁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싸웁니다(갈 5:22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믿음이 없으면 이 싸움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딤페전 6: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을 위해 이것들을(투기 분쟁 논쟁 욕심)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딤페전 6:10-11). 믿음의 선한 싸움의 무기들입니다. 이것은 구원 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익힘으로 취하고, 싸움에 승리하게 합니다.

<맺음>

이 싸움을 승리하면 예수님의 사탄의 결박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향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에 대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2. 사탄의 결박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게 합니까? 다시 말하면, 죄의 권세의 뿌리가 잘리고서 어떤 싸움을 싸우게 됩니까?